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명칭 고찰

황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연구원, 한국어학 전공
eywhang@yahoo.co.kr

- I. 머리말
- II. 언간 자료 명칭의 현황
- III. 언간 자료의 명칭과 관련 서지사항
- IV. 맷음말

이 논문은 2011년 2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의 언간 명칭 고찰’을 수정, 보완한 것임.

I. 머리말

언간 자료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연구 자료로 활발히 활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연구에서 필수적인 출처 등에 관한 기본 서지연구가 도외시됨으로써 일관성 없이 분류와 명명이 이루어져왔다. 언간 명칭도 이러한 기본 서지를 바탕으로 한 자료적 입장보다는 연구자 중심적인 입장에서 작성자(발신자), 출처, 수록 형태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일관된 원리 없이 명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간 명칭이 크게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와 출처 중심의 원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작성자(발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은 애초 발굴, 소개된 자료의 출처와 현재의 소장사항 등 자료 변동에 관한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반면 출처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서지사항에 관한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자료의 실증성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언간 자료가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닌 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일관된 원리 없이 분류, 명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 개념의 고문서 분류 상황을 고려하여¹⁾ 현재의 언간의 분류와 명칭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언간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언간 명칭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관련 기본 서지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언간의 명칭을 표준화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²⁾

1) 고문서의 문서 분류에 관한 원리는 크게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방식(윤병태식)과 발·수신자의 신분, 지위에 따른 분류방식(최승희식)으로 나뉜다. 현재 고문서학계에서는 이러한 두 축의 원리가 대립되는 가운데 끊임없는 논의가 계속되는 데 대해, 실제 고문서를 다루는 관련 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 및 실정에 따라 특정 원리를 따르거나 출처를 중심으로 하여 문서의 성격에 따라 하위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경목·전영근(2010) 참조.

2) 언간의 명칭을 고찰하면서 그 명명을 언간의 분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 언급하지만 이 글에서는 개별 언간의 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보류하기로 한다.

II. 언간 자료 명칭의 현황

조선시대 언간 자료는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 소개되어오면서 그 명칭 역시 논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언간 자료의 명칭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찰 대상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의 언간 자료 명칭은 그간의 관련 연구 업적에서 다룬 언간의 명칭과 관련하여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

이에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에서 대상으로 하는 언간 자료를 살펴보면 총 28종 1,470건으로, 이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언간 명칭의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대상 언간과 관련 명칭 현황

번호	판독자료집	관련 명칭	수록사항	건수
1	해주오씨 오태주가 『어필』 명인공주 관련 언간	『명안공주관련유물도록』: 강릉시립박물관(1996) 『명안어서첩』 소재 언간: 김용경(2001)	『御筆』, 『首楊傳世遺墨』	13
2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언간	『명성황후의 묵직에 대한 기초연구』, 명성황후의 한글 봉서: 민덕식(2003)	없음	134
		『명성황후 편지글』, 명성황후 편지: 이기대(2007)	없음	
3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궁녀 언간	『명성황후 편지글』, 봉서: 이기대(2007) ⁴⁾	없음	36
4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언간	자손보전 소재 언간: 김일근(1986b) 신창맹씨 '자손보전' 수적: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子孫寶傳』	20
5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선세언독』 언간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후손가편 선 세언독: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4)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간찰 『선세언 독』: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先世諺牘』	40

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기초 연구 과제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수집 정리와 어휘, 서체 사전의 편찬 연구'의 최종 결과물의 하나로, 현전하는 조선시대 주요 언간의 서지와 판독을 망라하는 자료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자료의 분류와 명명은 관련 연구 업적의 내용을 최대한 계승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하다.

번호	관련자료집	관련 명칭	수록사항	건수	
6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진주하씨묘 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 건들바우박물관(1991) 『진주하씨묘 출토 현풍곽씨 언간 판독문』: 백두현(1997) 『현풍곽씨 언간주해』: 백두현(2003) 진주하씨 언간: 안귀남(1996) 경북달성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황문환(2002)	없음	147 ⁵⁾	
7	선조 언간 효종 언간 정조 언간 정순왕후 언간 순원왕후 언간 신정왕후 언간 여흥민씨 민옹식가 『명성황후 어필』 언간	예술의 전당 · 서울 서예 박물관 (2002) ⁶⁾	선조, 정숙옹주에게 보낸 언간 효종, 장모에게 보낸 언간 정조, 외숙모에게 보내는 언간 정조, 외숙모에게 보내는 언간 정조, 흥첨판택에 보내는 언간 정순왕후 김씨, 조고 봉서에 대한 답장 순원왕후 김씨 언간 신정왕후 조씨 언간 명성황후 민씨, 민병승부자에게 보내는 언간 명성황후 민비 친필밀서 : 정병우(1974)	『仁穆王侯筆跡』, 규장각 『孝宗大王在瀋陽 宸翰帖』, 면남서당 『御筆』, 개인소장 없음 없음 없음 『明成皇后御筆』 (총 10건 중 1건 만 해당)	1 1 3 1 1 1 1 1
8	순명효황후 언간	경주김씨 학주공파 김면주 종가 소장 한글 편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순명효황후 관련 한글간찰: 한국학중앙연구원(2007) 보령 경주김씨 한글간찰: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없음	11	
9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충북대박물관/조간상(1981) : 청주북일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청주북일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 전철웅(1995)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 조항범(1998)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 충북대박물관(2002) 충북청주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 황문환(2002)	없음	188 ⁷⁾	

번호	판독자료집	관련 명칭	수록사항	건수
10	나주임씨가『임창계 선생목보국자내간』 언간	국문친필 간찰(13간)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4) 임창계선생목보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임창계선생목보 국자내간』	18
11	나주임씨가『총암공 수목내간』언간	총암공수목내간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총암공수목내간』	8
12	『숙명신한첩』언간	숙명신한첩 : 김일근(1986b) 숙명신한첩 / 숙명공주의 한글편지 : 김일근·이종덕(2001b, c, d)	『淑明宸翰帖』	67
13	고령박씨가 『선세언적』언간	선세언적(4간) : 김완진(1972) 선세언적 소재 언간(3간) : 김일근(1986b) 고령박씨 선세언적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先世諺蹟』	21
14	조용선 소장 '봉서' 언간	『봉서』 : 조용선(1997)	없음	40
15	안동권씨 권오벽가 월성이씨 언간	안동권씨가『선필유적』소재 월성이씨 언 간 : 황문환(1997, 1998)	『先筆遺蹟』	3
16	은진승씨 송병필가 언간	충북영동 송병필가 한글편지 : 박재연·황문환(2005)	없음	91
17	이응태묘 출토 언간	고성이씨 이응태묘 출토 편지 : 안귀남(1999)	없음	1
18	송시열 언간	송시열 언간 : 김일근(1986, 1991) 손부에게 주는 글 : 국립청주박물관 편(2007)	없음	2
19	의성김씨 김성일가 언간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간찰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없음	167
20	은진승씨 제월당 송 규렴가『선찰』언간	은진승씨 제월당편 선찰 소재 언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4) 은진승씨 송규렴 가문 한글간찰『선찰』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先札』	124
21	추사 언간	추사 언간 : 김일근(1986b) 추사의 한글편지 : 김일근·이종덕·황문환(2004)	없음	40
22	은진승씨 동춘당 송 준길가 언간	회덕 은진승씨 동춘당 송준길후손가 한글 편지 : 한국학중앙연구원(2004) 은진승씨 송준길가 한글간찰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없음	100 ⁹)
23	『숙휘신한첩』언간	신한첩 : 김일근(1959) 숙휘신한첩 : 김일근(1986b) 숙휘신한첩 : 김일근·이종덕(2000a, b, c, 2001a)	『宸翰帖』(坤)	35

번호	판독자료집	관련 명칭	수록사항	건수
24	예술의 전당 (1991)	정철 모 안씨부인 글씨	없음	1
		정철 자당 안씨 언간: 김일근(1986b)		1
		정철 글씨		1
		정철 언간: 김일근(1986b)		1
		김성일 글씨		1
		김성일 언간: 김일근(1986b)		1
		허목 글씨		1
		김윤겸 언간		1
		성대중 글씨		1
		성대중 언간: 김일근(1986b)		1
		정약용 글씨		1
		유희 부인 권씨 글씨		1
		유희 부인 권씨 언간: 김일근(1986b)		1
		이하응 글씨		3
25	『순원왕후 어필』 언간	신정왕후 조대비 언간	『純元王后 御筆』	25
		명현왕후 흥씨 언간		
26	순원왕후 어필봉서	현상궁 글씨	없음	33
		하상궁 글씨		
27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	이동표 선생의 언간(4건): 김종택(1979)	없음	37
28	추사가 언간	추사가의 한글편지: 추사 조모 윤씨서 등 (23건): 김일근(1982a, b)	없음	45
		추사가의 한글편지들: 김상희가 아내와 누 이에게 보내는 편지 등(7건): 김일근 · 흉문환(1998, 1999, 2000)		

- 4) 명성황후 친필이 아니라 명성황후와 관계 있는 궁녀 편지를 모은 것이다.
- 5) 진주하씨 묘 출토 언간은 김일근(1991)에서 149건으로 소개하였고, 백두현(2003)에서
는 4건이 더 발굴, 소개되어 있다.
- 6) 총 25건 중 『숙명신한첩』과 해주오씨 오태주가 『御筆』 명안공주 관련 언간에서 중복된
16건을 제외한 나머지만 해당한다.
- 7) 본래 발굴, 소개된 총 192건 자료 중 언간은 188건만 해당된다.
- 8) 추사 언간은 김일근(1979)에 최초로 10편이 소개된 이래 김일근(1982a, b), 김일근
(1986a)에 연속해서 소개되었고, 이를 수정, 증보한 총 40건이 김일근(1986b)에 종합되
어 있다. 김일근(1986b) 참조.

이들 자료는 대부분 발신자, 출처, 출토지, 성첩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가지는 개별 간찰들의 집합인 종별 단위로 수집, 정리되어 있으며, 자료의 명칭은 종별 단위로 부여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위분류 단위에 해당하는 종별 단위의 명칭이 그에 속하는 하위 개별 단위의 언간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지 않고 개별 단위로 존재하는 언간 자료도 존재하는데, 주로 『조선왕조 어필』, 『한글서예변천전』, 『봉서』 등과 같은 도록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낱장 언간들로서, 개별 발신자 중심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종별 단위의 언간은 수록 형태에 따라 낱장 형태와 성첩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낱장 형태의 언간이 전체 18종 / 28종, 1092건 / 147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대해, 성첩 형태의 언간은 10종 / 28종, 378건 / 1470건 이 분포한다.

낱장 형태의 언간은 여홍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언간, 여홍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궁녀 언간, 순명효황후 언간, 안동권씨 권오벽가 월성 이씨 언간, 송시열 언간, 추사 언간, 순원왕후 어필봉서 외에도 『조선왕조 어필』, 『한글서예변천전』, 『봉서』에 수록된 개별 언간이 있다. 이들 언간 명칭은 주로 발신자를 중심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발신자가 1인으로 단일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송병필가 언간, 의성김씨가 언간, 추사가 언간,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도 낱장 형태로 존재하는 언간으로서, 이들 역시 발신자를 중심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발신자가 단일하지 않은 여러 명으로서 이들을 포괄하는 가문명으로 명명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¹⁰⁾

이와는 달리 낱장 언간 가운데는 수신자를 중심으로 명명되는 것도 있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이응태묘 출토 언간이 이에 해당한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의 발신자는 순천김씨 남편과 친정 가족들인 데 대해¹¹⁾, 수신자는 대부분 순천김씨에 집중되어 있다.¹²⁾ 이응태묘 출토

9) 본래 발굴 소개된 총 106건 자료 가운데 언간은 100건이 해당된다.

10) 동일하게 발신자를 기준으로 명명하면서, 단일 발신자는 반영하고, 발신자가 여러 명일 경우는 가문명으로 대표하여 명명하는 것은 언간을 종별 단위로 보아 전체를 명명하는 테는 유용하지만 개별 단위의 자료로 보는 입장에서는 부적합한 점이 있다.

11) 신천강씨(117건), 김훈(10건), 채무이(41건), 김여흘(1건), 김여물(1건)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한다.

12) 그 외 수신자로 순천김씨 남동생 김여물(3건), 순천김씨 올케(4건), 순천김씨 남편

언간은 발굴된 총 18건의 편지 가운데 유일한 언간으로, 고성이씨 17대손 이응태가 요절한 후 그의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렇게 묘 출토 언간 명칭은 묘주가 대부분 수신자라는 점에서, 작성자(발신자) 중심으로 명명되는 언간과 차이를 보인다.

이 외에도 언간이 성첩되어 있는 경우, 그 명칭은 필첩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신창맹씨가 『자손보전(子孫寶傳)』 언간, 고령박씨가 『선세 언적(先世諺蹟)』 언간,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선세언독(先世諺牘)』 언간,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先札)』 언간, 『숙명신한첩』 언간, 『숙휘신한첩』 언간, 『순원왕후 어필』 언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언간은 본래 자료가 소재해 있던 출처를 중심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의성김씨가 언간, 송준길가 언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¹³⁾

이렇게 언간은 개별 단위 언간을 기본으로 하여 공통된 특성에 따라 종별로 분류되면서 ①발신자를 중심으로 명명되거나, ②출처를 중심으로 명명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발신자 중심의 명칭은 단일한 발신자와 다수의 발신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데 대해 예외적으로 수신자 중심으로 명명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묘 출토 언간으로, 묘주인 수신자가 중심이 된 경우이다. 이에 대해 출처 중심의 명칭은 언간 자료의 원 소장처, (묘)출토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언간 자료는 ③성첩 여부에 따라 필첩이 존재하는 경우는 필첩명을 그대로 따라 명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언간의 명칭 가운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관련 논저별로 위의 원리들이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은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이응태묘 출토 언간이 그대로 묘 출토 언간으로 명명되는 데 대해, 분류와 명칭에서 해당 연구 업적들 사이에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진주하씨묘 출토 문헌(망우당 종질 재실 진주하씨묘 출토 문헌: 김일근 외, 1991)이라고 칭하는 경우와 현풍곽씨 언간(백두현, 1997 · 2003)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김일근(1991) 등의 명칭이 출토지를 중심으로 한 것임에 비해, 백두현(1997, 2003) 등은 발신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¹⁴⁾ 기존의 출처 중심의

채무이(4건) 등이 더 있다.

13) 송병필가 언간, 이동표가 언간, 추사가 언간은 명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구별을 요한다.

명명법에 대해 ‘발신자’라는 새로운 명명 원리가 등장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명칭이 사용되는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순명효황후 연간(11건)은 ‘경주김씨 학주공과 김면주 종가 소장 한글편지’로 원문이 소개된 이래(정신문화연구원, 1990) ‘순명효황후 관련 한글간찰’(어강석, 2007), ‘보령 경주김씨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2009)에서 관련 해제 및 역주가 이루어졌다. 이 역시 가문에 소장된 연간 자료를 출처 중심으로 명명한 데 대해, 주요 발신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명칭이 나타남으로써,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자료로 오해될 수 있는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명안공주 관련 연간(13건)은 강릉시립박물관(1996)에서 『명안공주 관련 유물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된 이래, 김용경(2001), 예술의전당(2002)¹⁵⁾, 백두현(2004)에서 다루어졌다. 이들은 모두 개별 편지를 발신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¹⁶⁾ 연간 명칭은 논저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강릉시립박물관(1996)의 경우, 현종의 부마 해창위 오태주 문중에 소장되어오던 명안공주의 유품 45점(전적, 고문서, 생활용품 등)이 강릉시립박물관에 소장되면서 발간된 자료라는

14) 기준의 출처 중심의 명칭과 달리 발신자 중심의 명칭을 새롭게 제기한 데 대해 백두현(2003)에서는 이 문건들이 하씨묘에서 출토된 것이기는 하나 필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정작 하씨의 것은 추정을 포함해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전체 172건 중 6건), 누가 보관했는가 아니라 누가 썼는가가 더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그 장점으로 글을 쓴 주체가 현풍곽씨 문중 사람이라는 점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 편지글의 언어에 당시 현풍 방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의 언어적 성격, 지역적 배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백두현(2003)에서는 앞서 발굴된 동일한 성격의 자료인 순천김씨의 경우, 순천 김씨 묘에서 출토되었고, 편지를 쓴 주체가 순천김씨를 포함한 김씨 집안사람들 간에 오간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출토된 묘주와 작성 주체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이 명칭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천김씨묘 출토 연간이 묘주와 작성 주체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이 명칭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한 데 대해, 이 경우 묘주는 작성 주체(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순천김씨)이며, 작성자는 순천김씨 친정 가족(어머니 신천강씨를 포함한 아버지, 형제들)과 남편으로, 작성 주체가 단일하지도 동질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반면, 진주하씨묘 출토 연간은 묘주가 대부분 수신자(진주하씨)이면서, 작성자는 대부분 현풍곽씨 일가(남편, 자녀)라는 점에서 발신자를 명칭의 중심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묘 출토라는 특성을 가진 연간을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하는 것은 명확한 출처 정보를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상황의 순천김씨묘 출토 연간의 명명 원리와 더불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15) 명안공주 관련 연간 가운데 일부(6건)를 발신자별로 정리하였다.

16) 강릉시립박물관(1996)에서는 명안공주 친필 연간을 명안공주가 숙종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 외 논저에서는 모두 비녀 유생의 고목으로 보고 있다.

점에서 부분적 수신자에 해당되는 명안공주를 중심으로 명명하였던 데 비해, 김용경(2001)에서는 ‘명안어서첩(明安御書帖) 소재 연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강릉시립박물관의 명명방식과 같은 맥락에서 부분적 수신자를 포함한 해당 연간의 서첩 제목으로 명명한 것이다.¹⁷⁾

명안공주 관련 연간의 분류는 발신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명칭은 발간 목적에 따라 수신자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장첩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누락된 서첩명을 부분적으로 따라 ‘명안어서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원리를 따르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연간의 명칭은 연간의 성격에 따라 작성자(발신자), 출처(원소장처), 수록 형태(필첩)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양상까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관된 원리의 확립과 적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일관된 원리는 무엇보다도 연간의 관련 서지사항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 서지사항과의 연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III. 연간 자료의 명칭과 관련 서지사항

1. 연간 자료의 명칭과 출처(원소장처)

1) 민간 사대부가 연간

① 낱장 형태 연간

여홍민씨 민영소 후손가 명성황후 연간, 여홍민씨 민영소 후손가 명성황후궁녀 연간,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연간, 의성김씨 김성일가 연간¹⁸⁾, 순명효황후 연간(경주김씨 학주공파 김면주가)은 모두 출처가 명확히 확인된 낱장 형태의 연간들이다.

여홍민씨 민영소 후손가에서 비롯된 명성황후 연간(134건)과 명성황후

17) 김용경(2001)은 논저 내에서 서첩 『御筆』을 『御書』로 잘못 이해하여 사용하였으며, 유방의 고목 1건이 『首楊傳世遺墨』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배제되어 있다.

18) 이 외에도 창계목보, 총암공수목내간으로 불리는 연간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창계선생목보국자내간』과 『총암공 수목내간』에 관한 수록사항(필첩사항)이 보다 명확히 구명될 필요가 있다.

궁녀 언간(36건)은 『명성황후의 묵적』(민덕식, 2003), 『명성황후 편지글』(이기대, 2007), 『명성황후의 한글편지』(국립고궁박물관, 2010)에 소개된 명성황후 친필 언간과 명성황후 관련 궁인의 언간을 이른다. 이 외에도 명성황후 언간은 일찍이 정병욱(1974)¹⁹⁾, 박요순(1992)²⁰⁾에서도 소개된 바, 이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애초 자료가 비롯된 출처에 관한 정보를 통해 구분될 수밖에 없다.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 후손가에는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조상들의 언간을 후손들이 발신자별로 정리해 별도로 묶음으로 두거나 발신자 표시를 하여 정리해둔 총 15묶음 347건의 언간이 있다. 이들 자료는 애초부터 가전되어 최근까지 송준길가 후손들이 가문의 유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대전 선비박물관에 소장되다가 최근 해당 지역 선사박물관에 이관되어 소장되어 있던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자료연구실에서 수집, 정리 후, 총 15묶음 가운데 1, 2 일부와 3, 4, 5, 10, 14a 일부가 판독, 역주되어 소개되었다.²¹⁾ 의성김씨 김성일가 언간도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역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집, 정리 후 한국학중앙연구원(2009)²²⁾의 판독, 역주 작업을 통해 소개되었다.²³⁾

이렇게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과 의성김씨 김성일가 언간은 분명한 출처를 바탕으로 출처 중심의 원리에 따라 명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언간이 작성자(발신자)가 단일한 개별 언간이 아니라 해당 가문에 속하거나 관계된 여러 사람의 언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출처 중심의 명칭은 언간을 개별 단위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출처와 함께 발신자 중심의 원리에 따라 출처와 발신자를 명칭에 모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 정병욱(1974)에는 ‘명성황후 민비 친필밀서’라는 제목으로 총 10건이 수록되어 있다. 본래 『明成皇后御筆』이라는 필첩에서 수신인별로 장첩되어 있던 것을 교주자가 날짜순으로 재편집하였다.

20) 박요순(1992)에는 ‘명성황후언간찰’이라는 제목으로 총 21건이 실려 있다. 이를 편지는 명성황후의 친서가 아니라 대필 편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1)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 후손가 한글간찰』(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9).

22)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9).

23) 의성김씨가 언간은 의성김씨 천천파 가문에서 나온 언간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성김씨 김성일파’로 표시함으로써 구분을 요한다.

순명효황후 언간은 본래 경주김씨 학주공파 김면주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원본은 종손 김환익이 소장하다가 2006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증되어 관리되고 있다. 순종 비인 순명효황후 민씨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인물은 김상덕으로 김면주의 증손이며 기증자 김환기의 증조부이다. 이 가문에 소장된 총 20건의 언간 가운데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10건)와 김상덕이 순명효황후에게 보낸 편지(1건)가 해당된다. 애초 출처를 중심으로 명명한 데 대해, 주요 발신자를 중심으로 한 명칭이 공존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두 가지 원리가 각각 적용되어 서로 무관한 자료로 인식되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두 원리를 함께 적용하여 출처와 발신자 모두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글서예변천전』에 수록된 개별 언간 가운데 죽산안씨 언간(1건)은 송강 정철의 자당 안씨 언간으로 김일근(1986b)²⁴⁾에 수록되어 있으며 후손 정희택에게서 비롯되었다. 정철 언간(1건)²⁵⁾도 후손 정태덕이 소장 하던 것으로 이들 역시 분명히 밝혀진 출처가 발신자와 더불어 명칭에 반영됨으로써 자료의 변별성이 드러날 수 있다.

② 필첩 형태 언간

『선세언독』 언간, 『선찰』 언간, 명안공주 관련 언간, 월성이씨 언간은 모두 출처가 명확한 필첩 형태의 언간들이다. 『선세언독』은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 가문의 관련 인물 18명의 언간을 모아 성첩해놓은 것으로²⁶⁾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 후손가 낱장 언간(100건)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선세언독』에 수록된 언간의 작성시기가 주로 17, 18세기에 집중되어 있고 송준길·송광식·송병하·송요화·송익흠 등의 편지

24) 송강 자당 안씨 언간은 총 3편이 전한다. 1959년 8월 8~9일자 『동아일보』에 ‘松江의 國文遺墨’으로 소개된 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松江全集』(1964)에 영인되어 있다.

25) 송강의 언간은 총 3편이 전한다. 2편은 자당 안씨언간과 같이 1959년 8월 8~9일자 『동아일보』에 ‘松江의 國文遺墨’으로 소개된 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松江全集』(1964)에 영인되어 있다. 다른 한 편은 14대 손 정태덕이 송강 아내 유씨부인 언간 2건과 더불어 소장하고 있다.

26) 총 40건 가운데 39건은 송익흠(宋益欽, 1708~1757)의 처 여홍민씨(驪興閔氏)가 1764년에서 1770년 사이에 성첩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건은 송요화(宋堯和, 1682~1764)의 처 안동김씨(安東金氏)의 편지를玄孫 송문희(宋文熙, 1773~1839)가 1802년에 정리한 것을 이후 송종오(宋鍾五, 1823~1904)가 다시 정리하면서 덧붙여둔 것이다.

가 분포하는 데 대해, 송준길가 언간도 16~18세기에 분포하는 가운데 송병하·송요화·송익흠·안정나 씨의 편지가 함께 분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들을 개별 언간 단위로 구분해보았을 때, 동일한 발신자의 언간이 필첩과 모두 낱장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들을 구분해줄 수 있는 차이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간 명칭에 수록사항의 차이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언간의 명칭은 출처와 발신자 정보를 포함하되, 수록사항(필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선찰』 언간은 제월당 송규렴의 후손가에 전하는 모두 9첩의 간찰첩으로 현재 경기도 박물관 소장되어 있다. 제월당 송규렴의 전적 21첩 중 『선찰』 1~9에 포함되어 있는 언간은 총 124건으로, 한글편지는 2, 3, 6권에 각각 1건, 7권에 6건, 8권에 3건, 9권에 112건이 실려 있다. 역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4),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의 판독, 역주를 통해 공개되었다. 『선찰』 9에 실린 언간은 송규렴과 아내인 안동김씨가 아들인 송상기, 며느리인 칠원윤씨, 딸(이익명의 처), 손자·손녀 등에게 보낸 것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역시 명확한 출처를 바탕으로 발신자 정보와 수록사항(필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명칭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명안공주 관련 언간은 명안공주의 부군 해주오씨 오태주가에 가전된 『어필(御筆)』과 『수양전세유묵(首楊傳世遺墨)』에 수록된 현종 언간, 명성왕후 언간, 숙종 언간과 명안공주 관련 노비 유앵의 언간을 이른다. 명안공주 관련 언간은 기존의 연구에서 발신자 중심으로 분류되었는데도 명칭은 발간 목적에 따라 수신자(일부)를 반영하거나 장첩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누락된 서첩명을 부분적으로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명안공주에게 발송된 여러 편의 언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신자 별 개별 언간 단위로 구분하여 출처와 수록 정보를 포함한 명칭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월성이씨 언간은 안동권씨 동주공파 용계손 종가 권오벽가에 전하는 『선필유적(先筆遺蹟)』에 포함된 언간 3건으로, 황문환(1997, 1998)에서 이미 “안동권씨가 『선필유적』 소재 월성이씨 언간”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명칭은 발신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출처를 위시한 수록 서첩이 존재하는 사실을 명칭에 온전히 담았다는 점에서 이 글이 지향하는 명칭에 관한 입장과 일치한다.

한편 『한글서예변천전』에 수록된 개별 언간 가운데 김성일 언간은 학봉 14대 종손 김시인이 소장한 『선조필첩(先祖筆帖)』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다.²⁷⁾ 이 역시 출처와 발신자에 더하여 수록 정보까지 모두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변별될 수 있다.

2) 묘 출토 언간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이옹태묘 출토 언간,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은 모두 묘 출토 언간이라는 특징을 가진 자료로, 이들 언간은 명칭에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은 충북 청주 청원군 북일면 일대 인천채씨 무이의 계배(繼配) 순천김씨묘 이장 작업과정에서 최초 발굴된 후, 중요민속자료 109호로 지정되어 현재 충북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옹태묘 출토 언간²⁸⁾도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택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고성이씨 안동 종손 이동형 씨가 합장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어 현재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168건)은 경북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석문산성 망우당 곽재우의 종질 곽주의 재실 진주하씨묘 이장 작업 과정에서 출토되어, 건들바우박물관(현, 한국무속박물관)에 소장된 후, 중요민속자료 229호로 지정되어, 현재 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출토 직후, 김일근(1991)에서 처음으로 자료 원문 사진 전체와 판독부 일부(10건)가 소개된 이후 백두현(1997), 황문환(2002)에서 전체 판독 작업과, 백두현(2003)에서 역주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묘 출토 언간은 출토지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출처에 준하는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취급하여 출처에 상당하는 요소로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발신자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출토지와 발신자 사항이 함께 명칭에 반영됨으로써 묘출토 언간의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외에 『숙희신한첩』 언간, 『숙명신한첩』 언간, 『순원왕후 어필』

27) 1957년 8월 26~28일자 『조선일보』에 ‘학봉 김성일 寄內書’로 소개되었고, 1968년 건국 대학교 『국어학논집』 제2호에 보고되었다.

28) 안귀남(1999)에서 ‘固城李氏 李應台墓 出土 편지’로 처음 소개되었고, 장영길(1999)에서도 ‘이옹태공 부인의 언간’으로 다루어졌다.

언간, 순원왕후 어필봉서, 『조선왕조 어필』 소재 언간, 『봉서』 소재 언간, 『한글서예변천전』 소재 언간, 송병필가 언간, 추사가 언간, 이동표가 언간, 송시열 언간, 추사 언간, 『자손보전』 언간, 『선세언적』 언간 등은 자료가 비롯된 출처와 관련해서 명확히 드러난 바가 없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이들 출처 미상의 언간은 출처 외의 소장사항(현재 소장, 수록 및 인용 사항)에 관한 정보를 통해 보완될 수밖에 없다.

2. 언간 자료의 명칭과 소장사항(현재 소장, 수록 및 인용사항)

1) 필첩 언간

① 왕실 언간

『숙휘신한첩』 언간, 『숙명신한첩』 언간, 『순원왕후어필』 언간은 모두 왕실 구성원들의 친필 언간임에도 불구하고, 후손에 의해 성첩되어 보전되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재 관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처 미상으로 존재하는 언간첩이다.

『숙휘신한첩』은 『신한첩(宸翰帖) 건(乾)』, 『신한첩 곤(坤)』 양첩으로 만들어져 전하던 것인데, 한문본 『신한첩 건』은 전하지 않고, 국문본만 현전하여 이를 신한첩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수신자에 해당하는 숙휘공주의 이름이 덧붙여진 것이다. 숙휘공주의 부군 인평위 정제현의 5대손 정진석이 가장한 구본을 작첩한 것으로 해명된 바 있으나, 출처 및 작첩에 관한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며²⁹⁾ 여러 경위를 거쳐 현재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숙명신한첩』도 수신자에 해당하는 숙명공주의 부군 심익현 후손가에 전해오던 것이 1962년에 김일근 교수가 발견, 입수하여 소장하다가 최근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역시 출처와 성첩에 관한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들 『숙휘신한첩』과 『숙명신한첩』에는 각각 효종, 인선왕후, 현종, 숙종, 명성왕후, 인현왕후, 장렬왕후에 이르는 다양한 발신자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역시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개별 단위 언간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언간은 출처가

29) 이에 대해서는 김일근(1972) 8~9쪽을 참조할 수 있다.

미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현재의 소장사항을 부가하여 수록사항과 개별 발신자 사항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다.

『순원왕후 어필』은 윤순의 글씨를 탁본한 서첩에 덧붙여져 성첩된 순원왕후의 한글편지를 이른다. 총 2첩으로 되어 있으며 출처 및 성첩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역시 출처가 미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소장사항(서울대 규장각 소장, 古貴 2410-21)을 더하여 수록사항과 개별 발신자 사항으로 명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왕조 어필』에 수록된 개별 언간 가운데 선조 언간, 효종 언간, 정조 언간, 명성황후 언간³⁰⁾은 각각 『인목왕후필적(첩)(仁穆王后筆(帖))』(서울대 가람문고본), 『효종대왕재심양신한첩(孝宗大王在潯陽宸翰帖)』(개인소장), 『어필(御筆)』(개인소장), 『명성황후 어필』(개인소장)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들 필첩의 원소장처 및 성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역시 출처를 보완하는 소장사항을 더하여 수록사항과 개별 발신자 사항을 중심으로 명명해야 한다.

② 민간 사대부가 언간

『자손보전』, 『선세언적』, 송시열 언간(『세차지구왕복첩(歲次知舊往復帖)』) 소재 1건)은 모두 필첩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고증을 통해 추정된 상태에 있는 것들이다. 『자손보전』³¹⁾은 신창맹씨 가전의 한글 수적 34편을 장첩한 것으로, 1980년대 숙명여대 박물관에서 고서상으로부터 입수하여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 문헌의 경위와 내용이 불명이었던 것을 김일근(1986b)을 통해 성첩 경위와 편자들의 인적사항이 구체화되었다.³²⁾ 김일근(1986b)에서 ‘자손보전 소재 언간’(9건)이 다루어졌고,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2005)에서 ‘신창 맹씨 자손보전 수적’ 전체의 판독, 역주가 이루어졌다.

30) 『조선왕조어필』에 수록되어 있는 명성황후 언간 1건은 민옹식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던 『明成皇后御筆』에 수록된 것으로, 말미에 흩어진 편지를 후손들이 모으고 발문을 적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출처(원소장처)에 관한 정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에 대해서는 고궁박물관(2010), 142쪽을 참조할 수 있다.

31) 판독자료집에서는 『자손보전』에 수록된 총 34건의 한글 수적 가운데 행장, 조리법, 비망록, 잡기 등을 제외한 언간 20건을 다루고 있는데, 김일근(1986b)에서는 언간을 21건으로 파악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32) 편자는 맹지대(孟至大, 1730–1793)와 맹흡구(孟鉉耆, 1805–?)이며, 맹지대가 1–27번 수적(手迹)을 모아 장정한 것을, 흡구가 아내의 수적(28–34번) 등을 첨부하여 완성하였다.

『선세언적』(21건)은 고령 박씨 문중 부인들의 언간을 성첩한 것으로 서³³⁾, 전체 24장 총 21건의 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완진 교수가 1976년 봄에 통문관에서 입수한 이래 현재 서강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김완진(1972)에서 『선세언적』의 일부가 처음 공개된 이래, 김일근(1986b)에서 일부가 소개되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에서 판독, 역주가 이루어졌다.

송시열 언간은 정원태(송강 정철의 차자 종명의 15대손)가 소장했던 『세차지구왕복첩』³⁴⁾에 소재한 언간 2건 중 송시열이 자신의 애제자 정보연이 몰한 후 후사를 걱정하여 미망인 민씨에게 보낸 친필 편지 1편을 이른다. 김일근 교수가 발견하여 《중앙일보》(7637호)에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은 출처를 추정상태의 것으로 보고, 낱장 편지와 구분되는 중요한 형태적 특징을 지니는 필첩 수록 사항과 발신자 사항을 명칭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손보전』, 『선세언적』은 가문 내 여러 사람의 편지를 성첩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작성자(발신자)별 개별 단위 언간으로 하위 구분하여 명명해야 할 것이다.

2) 낱장 언간

① 왕실 언간

『조선왕조 어필』에 수록된 개별 언간 가운데 정순왕후 언간과 경의왕 후 언간은 개인(안백순)이 소장하고 있으며, 순원왕후 언간과 신정왕후 언간은 건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봉서』에 수록된 개별 언간(40건)은 모두 개인(조용선) 소장이다. 이와 함께 규장각 소장 순원왕 후 어필봉서(33건)³⁵⁾ 모두 낱장으로 존재하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왕실 관련 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3) 『先世謬蹟』의 편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마지막 편지가 박경규(朴敬圭, 1744-1781)의 후처 연산서씨(1756-1804)의 간찰이므로 박경규의 후손이 장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2005)을 참조할 수 있다.

34) 종명의 손 정보연(鄭普演)에게 온 당시 명사들의 간첩을 이른다.

35) 현재 서울대 규장각 소장 '순원왕후 어필봉서'(奎 27785)라는 표제로 등록되어 있다. 표제에서 어필이 왕의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승희(2008)에서는 후대에 잘못 제첩된 것으로 보았다. 이들 편지는 낱장 편지로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봉투에 넣어 한 번 더 종이로 쌈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이승희 (2010)에서 33-1, 33-2를 하나로 보아 32건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순원왕후 언간은 이들 자료 외에도 김일근(1986b)에 3건, 김완진 소장(4건)의 것이 더 있으므로³⁶⁾ 이들을 아우르면서 각각을 구분하는 명칭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자료들은 모두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출처를 보완할 수 있는 현 소장처를 드러내고, 여기에 개별 발신자 사항을 부가하여 명명해야 할 것이다.

② 민간 사대부가 언간

송병필가 언간, 추사가 언간³⁷⁾, 이동표가 언간³⁸⁾은 단일하지 않은 여러 명의 발신자를 포괄하는 가문명으로 대표된 발신자 중심의 명칭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해당 가문과 관계된 여러 사람이 쓴 편지라는 점에서 그 가문과 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처에 해당하는 원소장처가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

송병필가 언간은 충북 영동 일대에 거주하는 송병필과 그 후손을 중심으로 일가 인물들 사이에 오간 언간으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경로를 거쳐 현재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추사가 언간은 추사 김정희의 조모 해평윤씨(6건), 자당 기계유씨(3건), 생부 김노경(11건), 계제 김상희(2건), 손자 김관제(1건) 등 총 23건³⁹⁾에 더해 이후 미발표분 22건(김노경 12건, 해평윤씨 9건, 혜경궁홍씨 1건)이 더 추가되어 김일근(1982a, b)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나 출처에 관한 내용은 불분명하다. 이들은 추사가의 한글편지라는 틀 안에서 발신자 중심으로 일관되게 분류, 명명되어 있다.

이동표가 언간은 진성이씨 이명익의 언간 1건을 제외한 이동표 언간을 일컫는 것이다. 개인소장으로 미공개 자료이다. 원소장처에 해당하는 출처에 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된 바 없이 김종택(1979)에서 일부가(4건) 소개되었다.

이렇게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낱장의 개별 언간 자료는 역시 출처를

36) 이에 대해서는 이승희(2010)를 참조할 수 있다.

37) 김일근(1982a, b)을 참조하면 추사가 언간의 출처는 추사가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공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38) 이동표가 언간은 1건을 제외한 모든 편지가 이동표 자신이 쓴 것으로 비교적 작성자가 단일하여 가문 내 여러 사람이 작성자인 다른 가문 언간들과 차이를 보인다.

39) 김일근(1982a, b)에서는 23건의 추사가 한글편지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대략의 교주,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원문을 그대로 판독한 것이 아닌 교주 형태의 것이라는 점에서 편지의 정확한 판독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

보완하는 수단으로 현 소장처를 드러내 각각을 개별 발신자 단위로 구분하여 개별 명칭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사 언간, 『한글서예변천전』 소재 개별 언간, 즉 허목 언간(박주환 소장), 이하웅 언간(박주환 소장), 김윤겸 언간(김종천 소장), 성대중 언간(김일근 소장), 권씨부인 언간(김일근 소장), 정약용 언간(미상), 신정왕후 언간·명현왕후 언간·현상궁 언간(대필, 유형 소장), 하상궁 언간(김일근 소장)과 송시열 언간(1건, 국립청주박물관 소장)은 민간 사대부가의 개별 단위 언간으로 개별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된 언간들이다. 이들 역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현재의 소장사항을 더하여 명명해야 할 것이다.

추사 언간은 김일근(1979)에서 일부(10건)가 처음 소개된 데 이어 김일근(1982b)에서 11건, 김일근(1986a, b)에서 12건이 더 발표되었다.⁴⁰⁾ 이들은 모두 발신자 중심으로 일관되게 분류되어 명명되어 있으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현재의 소장사항을 제시하고 발신자 단위로 명칭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글서예변천전』의 정약용 언간(미상)을 제외한⁴¹⁾ 허목 언간(박주환 소장), 이하웅 언간(박주환 소장), 김윤겸 언간(김종천 소장), 성대중 언간(김일근 소장), 권씨부인 언간(김일근 소장), 하상궁 언간(김일근 소장), 신정왕후 언간·명현왕후 언간·현상궁 언간(대필, 유형 소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가운데 현소장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역시 현소장처를 제시하고 여기에 개별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한다.⁴²⁾

40) 이상의 33건에 대한 문헌의 해독, 고증, 분석, 주해 등의 작업은 김일근(1986b)에서 부분적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언간의 연구(초판)에 해당하는 김일근(1986b)에는 21 건만 있고(『문학사상』 76호, 115호 분), 중정판에 해당하는 김일근(1991)에는 12건(『문학사상』 165호 분)을 더한 33건과 보유 6건(추기 또는 협서의 성격인 단간 6건인 바, 원 편지와 분리되어 전해온 까닭에 내용과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총괄 편수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음), 추가분 1건(제12신, 『조선일보』 1990년 7월 19일자 소개) 모두가 종합되어 있다.

41) 정약용 언간처럼 출처와 소장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부류의 언간은 소장사항에서 수록 논저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42) 김일근 소장의 성대중 언간과 유희 쳐 권씨부인 언간은 확인이 요망된다. 성대중 언간은 『青城集』, 『青城簡帖』에 수록되어 있으며, 元重擧에서부터 소장되던 것이 김일근에게 인계된 것으로 되어 있고, 권씨부인 언간도 후손가에서 비롯된 것이 김일근에게 인계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후의 소장사항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인간 자료의 명칭과 발신자

1) 발신자의 성명과 발신자의 관계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에 집적된 인간은 그간의 선행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발신자의 신상이 상당히 파악되어 발신자 성명을 해당 인간의 명칭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발신자의 정확한 성명은 파악되지 않고 신분,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친 경우도 나타난다. 편지의 발신자는 보통 편지 본문 혹은 봉투에 발신사항이 직접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편지 내용의 여러 정황 등을 통해 추측함으로써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신자의 신상 파악은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되어 발신자의 정확한 성명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득이 관계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⁴³⁾

특히 의성김씨 김성일가 인간처럼 발신자가 여럿일 경우, 발·수신 상호 간에 관계만 제시하면 그에 해당되는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신자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최소한이나마 이에 관한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발신자를 미상으로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의 발신자는 대부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비롯한 인간의 상황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그 관계가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발신자가 여성인 경우, 실명 파악 자체가 어려워 최소한 본관과 성 정도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그 관계를 명칭에 표시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개별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⁴⁴⁾

송준길 후손가 『선세언독』에 나타나는 진성이씨와 의성김씨가에 나타나는 진성이씨가 단순히 다른 가문에 속하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송준길가의 송준길 장모인 진성이씨와 의성김씨가 김진화 며느리 진성이씨라는 사실을 인간 명칭에서부터 바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발신자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으로만 표시할 경우 변별력

43) 이 외 발신자 표시 형식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왕실 인간의 경우, 성명보다는 왕호 등 왕실 내 호칭, 지위로 표시하고, 일반 사대부도 성명보다는 시호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44) 남성 발신자의 경우도 관계가 표시될 때 개별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음을 당연하다.

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의 경우, 출가한 딸들이 어머니 진주하씨에게 보낸 것, 출가한 딸들 사이에 오고 간 것들이 있는데, 이들의 발신사항을 성명으로 표시하면 진주하씨로 그쳐 이들 사이의 변별력이 전혀 없게 된다. 송병필가 언간도 송병필 가문의 여러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라는 점에서 발신자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송병필의 딸들이 자신의 어머니 전주이씨(송병필 처)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⁴⁵⁾, 이들의 발신자 사항을 성명으로 표시할 경우 은진송씨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발신자를 단순히 은진송씨로 나타내기보다는 은진송씨(김병칠 처), 은진송씨(민영연 처)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줄 필요가 있다.

2) 발신자와 대필자

『한글서예변천전』과 『봉서』에 소재한 언간 가운데는 왕후를 대신하여 쓴 궁인들의 대필 편지들이 나타난다. 이를 대필 편지는 발신자가 밝혀진 가운데 대필 사실이 확인되는 것과, 발신자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대필 사실만 확인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한글서예변천전』의 명현황후 언간, 신정왕후 언간은 정경부인 연안 김씨에게 보낸 편지로서, 발신자가 드러난 가운데 구체적 대필자는 드러나지 않은 궁인 대필 편지이며, 하상궁 언간, 현상궁 언간은 대필자만 드러난 경우에 해당된다.

『봉서』에는 신정왕후 · 효정왕후 · 명성황후 · 철인왕후가 보내는 편지를 대필한 궁인 편지가 있는데, 이를 대필자는 단순히 궁인으로만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궁인 대필 편지도 있는데, 이들은 궁인으로만 파악되는 경우와 서기이씨 · 서희순 · 김상궁 · 신상궁 · 원상궁 · 천상궁 · 최상궁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궁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발신자 외에 대필자가 존재하는 편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필사항이 명칭을 통해서도 표시되어야 한다. 발신자는 밝혀지지 않고 대필자만 밝혀진 경우는 발신자에 준하여 대필자를 중심으로 명명하

45) 송병필의 큰딸(김병칠 처)이 어머니 전주이씨(송병필 처)에게 보낸 편지와 송병필 둘째 딸(민영연 처)이 어머니 전주이씨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되, 반드시 그것이 대필임을 부기해야 한다. 반면에 발신자와 대필자가 모두 밝혀진 경우는 목적에 따라 중심을 대필자에 둘지, 발신자에 둘지로 나뉘며, 이에 따라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하고 대필사항을 부기하거나 대필자를 중심으로 대필 언간으로 명명하고 여기에 실질 발신사항을 부기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맷음말

이 글은 언간 자료가 일관된 원리 없이 분류, 명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간 명칭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간 명칭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작성되었다. 언간은 크게 출처 중심의 원리와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에 따라 명명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처는 원소장처로서, 대부분 자료가 비롯된 문증 등이 중심을 이루며, 이에 더해 묘 출토 언간도 구체적·실증적 출처로서 출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작성자(발신자)는 언간을 작성하여 보낸 실질적 주체로서 1차적으로 단일한 개별 발신자를 이르나, 집단, 단체로서 문증(가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출처 중심과 구별을 요한다.

이러한 원리는 언간에 따라 부분적·편파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동일 대상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다 일관성 있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글은 언간을 출처 중심의 종별 분류와 개별 발신자 중심의 개별 분류라는 2원적 체재로 봄으로써 출처 중심의 원리와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는 자료가 비롯된 원소장처를 의미하며, 원소장처가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표시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추정과 미상으로 구분지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장사항(현재 소장, 수록, 인용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묘 출토 언간의 경우는 그 특성을 존중하여 출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그대로 명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록 형태는 언간이 성첩되어 있으면 성첩사항을 드리냄으로써 변별성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자(발신자)는 성명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를 부가함으로

써 개별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자가 발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대필한 편지인 경우 대필 사실을 표시해줌으로써 역시 자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원리를 반영한 개별 인간의 명칭에 관한 실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이상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 출처가 분명한 인간의 명칭

- a. 낱장 인간: ‘출처 + 작성자(발신자) + 인간’
예) 여홍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인간
- b. 필첩 수록 인간: ‘출처 + 수록사항(필첩) + 작성자(발신자) + 인간’
예) 은진송씨 송준길가 『선세언독』 소재 송준길 인간
- c. 묘 출토 인간: ‘출처(출토지) + 작성자(발신자) 인간’
예) 순천김씨묘 출토 신천강씨 인간

B. 출처 미상 인간의 명칭

- a. 필첩 수록 인간 : ‘(추정 출처) · 현소장처 + 수록사항(필첩) + 작성자(발신자) + 인간’
예)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소재 완산이씨 인간,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숙명신한첩』 소재 선조 인간
- b. 낱장 인간: ‘현소장처 + 분류명 + 작성자(발신자) + 인간’
예) 규장각 소장 ‘순원왕후 어필봉서’ 순원왕후 인간, 민속박물관 소장 은진송씨 송병필가 송병필 인간 등

참 고 문 헌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滄溪集』.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94.

『明安公主關聯遺物圖錄(寶物 第1220號)』, 강릉시립박물관, 1996.

『명성황후 한글편지와 조선왕실의 시전지』, 국립고궁박물관, 2010.

『조선왕조어필』, 예술의전당, 2003.

『重要民俗資料 指定報告書(晋州 河氏墓 出土 遺物)』, 문화재관리국, 1993.

『順天金氏墓 出土 簡札』, 忠北大學校博物館, 2002.

『한글서예변천전』, 예술의전당, 1991.

국립청주박물관 편, 『우암 송시열』, 통천문화사, 2007.

金完鎮, 「『先世諺蹟』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55 · 56 · 57 합집, 국어국문학회, 1972.

김용경, 「명안어서첩(明安御書帖) 소재 연간에 대하여」, 『한말연구』 제9호, 한말연구학회, 2001.

金一根, 『解說 · 校註 李朝御筆諺簡集』, 1959.

_____, 『이조어필언간집』, 경인문화사, 1972.

_____, 「秋史의 한글편지 10통」, 『文學思想』 76호, 1979, 323-335쪽.

_____, 「秋史家의 한글편지들(上)」, 『文學思想』 114호, 1982a, 396-416쪽.

_____, 「秋史家의 한글편지들(下)」, 『文學思想』 115호, 1982b, 363-382쪽.

_____, 「秋史의 한글편지 12통」, 『文學思想』 165호, 1986a, 352-368쪽.

_____, 『三訂版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b.

_____, 『망우당 종질 괴주의 재실 진주하씨묘 출토 문헌의 개관』, 『진주하씨묘출토문헌과 의복조사보고서』, 건들바우박물관, 1991.

김일근 · 이종덕, 「17세기 궁중연간-淑徽宸翰帖 ①」, 『문헌과 해석』 통권11호, 문헌과해석사, 2000a, 74-82쪽.

_____, 「17세기 궁중연간-淑徽宸翰帖 ②」, 『문헌과 해석』 통권12호, 문헌과해석사, 2000b, 134-149쪽.

_____, 「17세기 궁중연간-淑徽宸翰帖 ③」, 『문헌과 해석』 통권13호, 문헌과해석사, 2000c, 40-55쪽.

_____, 「17세기 궁중연간-淑徽宸翰帖 ④」, 『문헌과 해석』 통권14호, 문헌과해석사, 2001a, 60-75쪽.

_____, 「17세기 궁중연간 V-淑明宸翰帖 ①」, 『문헌과 해석』 통권15호, 문헌과해석사, 2001b, 84-98쪽.

_____, 「숙명공주의 한글편지첩 ②」, 『문헌과 해석』 통권16호, 문헌과해석사, 2001c, 187-202쪽.

- 김일근 · 이종덕, 「숙명공주의 한글편지첩 ③」. 『문헌과 해석』 통권17호, 문헌과해석사, 2001d, 148-162쪽.
- 김일근 · 이종덕 · 황문환, 『秋史의 한글편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004.
- 김일근 · 황문환, 「金魯敬(秋史 父)이 아내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 5, 문헌과해석사, 1998a.
- _____, 「어머니 해평윤씨(秋史 祖母)가 아들 金魯敬(秋史 父)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 6, 문헌과해석사, 1999a.
- _____, 「金相喜(秋史 季弟)가 아내와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 7, 문헌과해석사, 1999b.
- _____, 「庶弟 金寬濟가 嫡兄 金翰濟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 9, 문헌과해석사, 1999c.
- _____, 「아내 杞溪愈氏(秋史 母)가 남편 金魯敬(秋史 父)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 10, 문헌과해석사, 2000.
- 閔德植, 「明成皇后的 墨蹟에 대한 基礎研究」. 『年報』 12,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3.
- 박부자, 『송준길(宋浚吉) 후손가의 언간첩 『선세언독(先世諺續)』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화회, 2008, 157-200쪽.
- 박재연 · 황문환, 『충북 영동 송병필가 한글편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 미도민속관, 2005.
- 백두현, 『晉州 河氏墓 出土 〈玄風 郭氏 諺簡〉 判讀文』. 『어문론총』 31호, 경북어문학회, 1997a, 19-88쪽.
- _____, 『현풍곽씨 연간 주해』. 태학사, 2003.
- _____, 「보물 1220호로 지정된 “명안공주(明安公主) 친필 연간”의 언어 분석과 진위(眞偽) 고찰」. 『어문론총』 제4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安貴男, 「諺簡의 敬語法 研究-16-20세기 諺簡 資料를 중심으로」,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6.
- _____, 『固城李氏 李應台墓 出土 편지』. 『문헌과해석』 6, 문헌과해석사, 1999, 40-46쪽.
- 魚江石, 『藏書閣 所藏 ‘純明孝皇后 관련 한글 簡札’의 內容과 價值』. 『藏書閣』 1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63-183쪽.
- 이기대, 『명성황후 편지글』. 도서출판 다운샘, 2007.
- 이래호, 「宋奎濂家 典籍 『先札』 所載 諺簡에 대하여」. 『語文研究』 123,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4.
- 이승희, 「奎章閣 所藏本 ‘純元王后 한글편지’의 고찰」. 『奎章閣』 2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2000, 113-140쪽.
- _____, 「순원왕후 한글편지’의 資料的 特性에 대한 一考察」. 『韓國文化』 4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31-47쪽.

- _____, 『순원왕후의 한글편지』. 푸른역사, 2010.
- 장영길, 「이옹태공 부인의 연간’에 대한 음운사적 고찰」. 『東岳語文論集』 35, 東岳語文學會, 1999, 51–68쪽.
- 전경목·전영근, 「한국 고문서의 분류 방안 고찰」. 『제1회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학 학술심포지엄 발표집』, 국립중앙도서관, 2010.
- 全哲雄, 「〈淸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의 判讀文」. 『湖西文化研究』 13, 충북대학교 종원문화연구소, 1995, 225–281쪽.
- 鄭炳昱, 「明成皇后 閔妃 親筆密書」. 『文學思想』 10월호, 文學思想社, 1974.
- 趙健相, 「解題 및 概說」. 『淸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 충북대박물관, 1981a, 17–33쪽.
- 조용선, 『봉서』. 도서출판 다운샘, 1997.
- 조항범, 註解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簡札資料選集 III 恩津宋氏 霽月堂篇-『先札』所載 診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 _____, 『韓國簡札資料選集VI 懷德 恩津宋氏 同春堂 宋浚吉後孫家篇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 후기 한글 간찰(연간)의 역주 연구 3』. 태학사, 2005.
- _____, 『조선후기 한글간찰(연간)의 역주 연구 4-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간찰』. 태학사, 2009.
- _____, 『조선후기 한글간찰(연간)의 역주 연구 5-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한글간찰』. 태학사, 2009.
- _____, 『조선후기 한글간찰(연간)의 역주 연구 6-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간찰』. 태학사, 2009.
- _____, 『조선후기 한글간찰(연간)의 역주 연구 8-대전 안동권씨 유희당가 한글간찰』. 태학사, 2009.
- 황문환, 「晋州河氏墓 한글편지에 나타난 敬語法」. 『成均語文研究』 29, 성균관대 국어국문과, 1993, 99–123쪽.
- _____, 「월성이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한글편지 1」. 『문헌과 해석』 1, 태학사, 1997.
- _____, 「월성이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한글 편지 2」. 『문헌과 해석』 2, 태학사, 1998.
- _____, 「남편 郭澍가 아내 晋州河氏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해석』 4, 태학사, 1998, 76–83쪽.
- _____, 『16, 17世紀 諺簡의 相對敬語法』. 國語學會, 太學社, 2002.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인간 자료가 일관된 원리 없이 분류, 명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간 명칭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간 명칭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인간은 크게 출처 중심의 원리와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에 따라 명명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처는 원소장처로서, 대부분 자료가 비롯되어 소장되어 온 문중 등이 중심을 이루며, 이에 더해 묘 출토 인간도 구체적·실증적 출처로서 출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작성자(발신자)는 인간을 작성하여 보낸 실질적 주체로서 1차적으로 단일한 개별 발신자를 이르나, 집단, 단체로서 문중(기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출처 중심과 구별을 요한다.

이러한 원리는 인간에 따라 부분적·편파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동일 대상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다 일관성 있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인간을 출처 중심의 종별 분류와 개별 발신자 중심의 개별 분류라는 2원적 체계로 봄으로써 출처 중심의 원리와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는 자료가 비롯된 원소장처를 의미하며, 원소장처가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표시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추정과 미상으로 구분지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장사항(현재 소장, 수록, 인용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묘 출토 인간의 경우는 그 특성을 존중하여 출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그대로 명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록 형태는 인간이 성첩되어 있으면 성첩사항을 드리냄으로써 변별성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자(발신자)는 성명으로 표시되며, 필요한 경우 관계를 부가함으로써 개별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자가 발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대필한 편지인 경우 대필 사실을 표시해줌으로써 역시 자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고일 2011. 3. 21.

수정일 2011. 5. 2.

개재 확정일 2011. 5. 13.

주제어(keyword) 출처(sources), 작성자(발신자, senders), 수록사항(성첩사항, containing forms, binding forms)

